家政學科의 當面課題

禹 順 任
(서울女大 家政學科)

I

우리나라에서 家政學敎育이 제도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9년 이화여자전문학교에 家事科가 창설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성교육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는 동안 초창기의 家政科敎育은 직업에 필요한 技術習得과 가사를 올바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科學的 硏究에 있었으며, 가족간의 사랑과 협조, 화목하는 정신의 배양을 기초로 한 민족성 내지는 국민성 앙양에 그 目標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 후 家政學科가 한 專門學科로 또는 한 學問으로서 體系化되기까지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家政學敎育을 받은 초창기 家政學 指導者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노력의 結實이라고 할 수 있다.

家政學科는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영향을 받아 그 명칭도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발전하였다. 家政學도 초기에 技術習得만을 敎育目標로 했을 때에는 House Craft 또는 House Art라 하였고, 그 후 자연과학에 기초를 두고 家政學科를 科學的으로 검토·연구할 때에는 Domestic Science라 하여 實用的인 家庭技術 위주의 家政學이었고, 그 후에는 經濟學과 社會學에 基盤을 두고 基礎科學의 知識을 日常生活에 實踐하게 된 家政學은 Home Economics라 부르게 되었으며 敎授, 硏究, 普及의 세 가지 기능을 함께 중요시하는 學問的인 本質追求의 家政學으로 發展이 되었다.

그러나 이 家政學은 中·高等學校에서의 家事·家政과 혼돈되는 경향이 있어, 家政學의 學問的 發達이나 專門的인 人材養成, 졸업생들의 社會進出면에서 어려운 問題가 많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 후 1950~1960년대에 家政學科와 家政敎育學科가 大學마다 設置되었는데 1964년에는 연세대학교에 처음으로 家政學科가 單科大學으로 승격 家政大學이 되고, 家政學分野의 敎育이 學問的으로 細分化되면서 전문영역의 硏究와 敎育이 本格的으로 이루어져 發展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家政學人口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 및 그 영향으로 家政學分野의 전공이 각 대학에서 細分化되어 지금은 많은 대학이 몇 개의 학과를 家政大學內에 두고 활발히 敎育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家政學의 學問的 性格에 대해 시대의 변천에 따른 價値觀의 차이에 따라 再評價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家政學의 내용이 Human Resources, 또는 Human Development, Human Ecology, Family Resources and Consumer Science 등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자원, 인간발달, 인간생태 등에 관한 全面

을 敎育하는 경지에 이르러 學科名을 改稱하는 大學도 생겼다. 그런데 여기서 초창기 미국의 the Lake Placid Conference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 위에 독자적인 分野로 家政學을 발전시켜 學問으로서의 家政學을 定立시키는 데 礎石이 되었다.

최근 家政學敎育에 관한 硏究가 發展的인 面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社會의 변천과 더불어 家政學科 敎育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目標下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效率性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고 있다. 참고로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된 家政學敎育에 관한 硏究事例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家政學의 검토와 未來의 方向提示를 위한 硏究
- 가정학 계열학과의 모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
- 韓國 家政學의 未來發展을 위한 檢討
- 가정과 교육혁신의 방향
- 家政學 敎科課程의 內容選定 및 組織化를 위한 理論的 探索—大學敎育을 中心으로—
- 家政科 運營上의 문제점과 參考物 調査
- 全國 女子大學(校) 家政科 科長 協議會에서 만든 講座目案 등

그러므로 發展되어 가는 社會 속에서 家政學科의 性格 및 敎科課程, 앞으로의 家政學은 어떤 方向으로 교육해야 할 것인가를 관련 참고문헌과 실지 조사 발표된 연구내용을 토대로 家政學科의 당면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대학 家政學科의 설치 목적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원만한 인격과 풍부한 지식을 지닌 이상적인 家庭管理者로서의 자질 함양, 둘째로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職業人 養成으로 함축되어 있다.

이것은 家政學科의 性格을 반영한 것이며 家政學科가 家庭生活 全般에 관하여 硏究하는 學問임을 뜻한다. 따라서 大學에 있어서의 家政學科는 개인과 가족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生活의 基準을 밝히고, 現實的으로는 技術과 情報를 종합·분석하여 家庭生活의 質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家政學科는 가정생활의 科學的 硏究를 주로 하고 그 硏究內容을 일반에게 전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이미 家政學을 전문영역으로 나누어 전문적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家政學科로 현존되어 있는 大學은 사실상 적다.

미국에서는 家政學科가 設置되어 있어도 敎科課程上에는 專攻別 選擇制度를 두어 실제로는 전문교육을 영역별로 시키고 있는 大學이 많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 家政學科에서 출발하여 전문영역으로 發展된 學科는 다음 〈표 1〉과 같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학이 가정학과를 세분하였으며 大學에 따라 이들 명칭이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독립된 학과로서 각기 학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뚜렷한 학문적 성격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家政學科는 이들 가정계열의 모든 分野를 綜合的으로 조금씩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설정된 敎科課程을 살펴볼 때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너무 방대하고 더우기 大學마다 敎科內容에 통일성이나 系統的인 敎科課程이 정리되어 있지도 못하고 또 家政學 專門家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도 않은 듯하다. 그러나 家政學科

〈표 1〉 전문 영역별 학과

① Clothing and Textile (의류·직물) ②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 ③ Housing and Interior Design (주택·실내장식)	가정 생활의 물적 연구
④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아동·가족)	가정 생활의 인적 연구
⑤ Home management (가정경영)	가정 생활의 경영·관리의 종합적 연구
⑥ Home economics education (가정교육)	가정과 교사 양성

는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에 대한 學點의 차이와 時間數의 차이는 있으나, 필수와 선택으로 그 學科가 정한 목적에 따라 大學대로의 家政學全般에 걸쳐 敎科目을 開設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家政學科가 설치되어 있는 大學間에 敎科運營上의 통일성을 어느 정도 유도하기 위하여 綜合的으로 분석 제시해 본 家政學科 모형 교육과정이다.

〈표 2〉는 家政學科의 性格에 맞추어 의·식·주(경영·관리)·가족·아동 각 분야에 안배된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또 선택과목을 고르게 개설하여 학생 스스로가 본인이 요구하는 과목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어느 한 分野를 집중적으로 선택·이수하도록 하면 家政學科에서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문영역의 전공을 어느 정도 교육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家政學科는 學問의 범위가 넓고 有機的인 關係에 있는 他分野의 多樣性에 의해 더욱 복잡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家政學이라는 學問의 位置가 모호해지므로 家政學이 독자적인 分野로 계속 發展하기 위해서는 統合된 專門영역으로 핵심 또는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家政學은 상호관련성이 타당해야 하며 각 전공분야의 교과목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家政學 專門分野의 교과 설정을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Home Economics Education
② General Home Economics
③ Food and Nutrition
④ Dietetics
⑤ Institution Administration
⑥ Fashion Merchandizing
⑦ Clothing and Textiles
⑧ Child Development
⑨ Interior Design
⑩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⑪ Housing and Equipment
⑫ Dress Design
⑬ Family Economics and Home Management
⑭ Economics Journalism

이 외에도 기초과목의 이수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대학 家政學科에서 運營해 온 敎育課程을 綜合해 보면 대체로 교과목을 다양하게 배분하였으나 특정과목에 시간과 학점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소홀히 되어 아주 설강이 되지 못한 교과목도 더러 있었다. 전공필수과목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모두를 다 이수해야 되므로 필수의 한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매학기마다 많은 교과목의 이수가 부득이 하였다. 한편 전공선택의 경우 비중이 적은 몇 개 과목이 나열되어 선택의 의미가 없이

〈표 2〉 가정학과 모형 교육과정

의 류		식 품 · 영 양		주(경영·관리·경제)		가 족 · 아 동		기 타 · 종 합	
· 피복재료	(3-3-0)	· 영양학	(3-3-0)	· 주거학	(3-3-0)	· 인간발달	(3-3-0)	· 가정학원론	
· 의복구성원리	(3-3-0)	· 식품학 및 조리원리	(3-2-2)	· 가정관리	(3-3-0)	· 가족관계	(3-3-0)	생리학	
의복구성실습 I	(3-1-4)	실험조리	(3-1-4)	· 가정경제	(3-3-0)	아동학	(3-3-0)	유기화학	
의복구성실습 II	(3-1-4)	음식과 문화	(3-1-4)	실내장식	(3-2-2)	가족발달	(3-3-0)	논문지도	
한국복식	(3-2-2)	식생활관리	(3-2-2)	가정관리		가족정신위생			
복식디자인	(3-3-0)	고급영양학	(3-3-0)	구매론	(3-3-0)	가족문제연구	(3-3-0)		
장식미술	(3-1-4)	식이요법	(3-3-0)	한국생활사	(3-3-0)				
복식사회심리	(3-3-0)	특수영양학	(3-3-0)	가정원예	(3-3-2)				
피복관리	(3-2-2)	식품가공 및 저장	(3-2-2)	생활환경론	(3-3-0)				

(「대한가정학회지」, 20권 2호 참고)

· 표는 필수과목, ( )의 첫째는 학점수, 두번째는 이론 시간수, 세번째는 실험·실습시간

학점을 채우기 위한 이수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필수과목의 과다한 설치는 실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家政學科 敎育課程 개발 연구에서 현행 가정학과 교육과정 중 문제로 도출된 것을 참고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정학과의 설치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아 폐과되어 가는 추세이다.
② 가정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이 대학에 따라 학문분야별로 고르게 배분되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다.
③ 교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과목수가 많고 학점이 적다.
④ 성격이 같은 교과목의 명칭 표현이 상이하고 다양하며 용어가 부적합하게 표현된 것이 있다.
⑤ 교과목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교과목간에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⑥ 전공필수와 선택이 각각 가정학과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지 못하였다.
⑦ 가정학 중 어느 한 분야에 필수와 선택이 편중되어 있다.

Ⅲ

이상은 가정학과 교과과정을 분석·검토하여 평가된 것이므로 기존의 家政學科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것은 물론 전공별로 선택제도를 두어 전문교육이 되도록 재편성하거나 또는 가정교육학과로 學科名을 변경하여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시키거나 또는 가정대학으로 발전시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家政敎育學科로의 변경은 현재 4학년 재학생부터 졸업정원의 30%만이 교직을 이수하게 制度的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敎員大學에서의 졸업생 배출은 일반 대학 졸업생의 교사 취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므로 가정대학으로의 전환이 더 發展的인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학계열 각 전공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은 현실적으로 전문분야의 연구소나 실험실, 각 분야에서 특수전문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으나, 가정학과 출신은 전문직 사원으로서의 취업능력이 전공이수자와 비교할 때 우선 敎科課程의 운영상 전문직업인 양성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학문적 실력이 직업의식을 약화시키고 아울러 전문가가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받고 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므로 家政學科도 專門化 경향으로 發展시켜 격변하는 社會와 환경에서 낙오하지 않는 전문인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